



# KIA '마무리 카드'

## 심동섭, 배짱·승부욕 무기로 내년 마무리 도전

KIA의 외국인 마무리 카드가 실패로 끝나면서 좌완 심동섭이 차기 마무리 후보로 주목을 받고 있다.

시즌 전 KIA의 '외국인 마무리' 카드에 대한 시선은 우려 반 기대 반이었다. 뒷문이 허술한 만큼 팀의 부족한 틈을 채운 선수가 출전이라는 규정 탓에 전력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지적도 많았다.

결과로 보면 실패한 카드다. 어센시오는 4.14의 높은 평균자책점으로 4승1패20세이브의 성적을 냈다. 블론세이브는 7개를 기록했다. 팀은 외국인 선수 선발 등판 날 '어센시오 딜레마'에 빠졌고, 불안불안한 피칭에 '귀족 마무리'라는 얘기가 나오는 등 선수단 내부의 시선도 곱지 못했다.

당장 올 시즌의 급한 불도 끄지 못한 KIA는 뒤늦게 내년 시즌을 위한 구상에 들어갔다. 마무리 카드로 심동섭을 지목한 것이다.

심동섭의 '마무리론'이 나온 뒤 첫 등판은 지난 3일 두산과의 경기였다. 2-1의 상황에서 등판한 심동섭은 9회 오재일-최주환-오재원을 상대로 KKK를 찍으며 세이브를 완성했다. 갑탄사가 절로 나오는 장면이었지만 심동섭 스스로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한 피칭이었다.

이날 심동섭은 3일 연속 마운드에 올랐다. 전날 세이브를 올린 어센시오가 대기조에서 빠지면서 심동섭이 마무리로 출격했다.

심동섭은 "등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캐치볼 등을 생각하고 훈련을 조절했다. 밸런스가 좋지 못했다. 공이 만족스럽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심동섭 마무리 카드에 대한 우려는 바로 이 부분이다. 팔꿈치 수술을 받으면서 지난 시즌 중반 복귀를 한 심동섭은 팔 상태가 좋지 못하다. 무리를 하면 팔뚝 근육이 뭉치는 등 연두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 꼼꼼한 관리와 기용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공 하나하나에 더 신중해야 하는 마무리 자리인 만큼 제구력도 더해져야 한다.

우려는 있지만 기대감도 크다. 배짱과 승부욕이 가장 큰 무기다.

심동섭은 "1점차 상황이었지만 연습경기다. 점수차가 큰 상황이라는 생각으로 공을 던졌다. 마운드에서 긴장을 하지는 않는다. 마무리 자리에 욕심 난다. 경기를 마무리하고 환호하는 모습이 멋져보인다"고 두툼한 배짱을 보였다.

또 "두산전에서 3개의 탈삼진으로 세이브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만족스럽지는 못했다. 내가 던진 영상을 다시 찾아보곤 하는데 솔직히 왜 타자들이 저 공을 못쳤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에는 좋은 컨디션으로 더 완벽하게 던지고 싶다"고 밝혔다.

몇 년째 풀리지 않고 있는 KIA의 마무리 고민. 심동섭의 남은 시즌에 눈길을 쏠리는 이유가 여기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다저스 '필승 카드'

## 류현진, 오늘 카디널스와 디비전 시리즈 3차전 출격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이런 중요한 경기에 선발로 나서지 못했을 것이다." 미국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 3차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원정경기에서 선발로 나선 류현진(27·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몸 상태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냈다.

류현진은 등판을 하루 앞둔 6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부시스타디움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했고,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은 기자회견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현진 언론의 관심은 류현진의 몸 상태를 향했다. "혹시 부상이 재발하면 어쩌나"라는 질문이 나올 정도였다.

류현진은 "부상이 재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단언하며 "부상 이후에 불펜피칭, 시뮬레이션 피칭을 하면서 몸에 전혀 이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영당이 부상, 어깨 통증이 이어지며 최근 6주 동안 3차례만 등판한 것에 대한 우려에도 "디비전시리즈 등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상이 있었다면 감독님이 나를 등판시키지 않았을 것이고, 나도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 안 좋은 상태에서 올라가지 않았을 것이다. 정말 준비 잘했다. 이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운드에 설 생각이다"라고 답했다.

류현진은 지난 9월 13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경기에서 1이닝만 던지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정규시즌 복귀를 포기하고 불펜피칭(9월 29일)과 시뮬레이션피칭(10월 2일)으로 몸 상태를 확인하고 다시 불펜피칭(4일)을 하며 최종 점검을 했다.

류현진은 "4월에 어깨 부상을 당했을 때보다 이번에는 공을 더 많이 던지며 준비했다. 재활훈련을 무리 없이 잘 소화했고 팔 상태도 정말 좋다"며 "디비전시리즈 3차전 등판까지 여유가 좀 있어서 불펜피칭을 통해 다시 한 번 모든 구종을 테스트해보고 싶었다"고 불펜피칭을 한 차례 더 소화한 이유를 설명했다.

류현진은 지난해 포스트시즌 두 경기에 등판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디비전시리즈에서 3이닝 6피안타 4실점으로 무너지며 생애 첫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 등판에서 쓴맛을 본 류현진은 세인트루이스와 리그 챔피언십에서는 완전히 다른 공을 선보였다. 챔피언십 3차전에 선발 등판한 류현진은 7이닝 동안 3안타만 내주고 무실점하는 역투를 펼쳤다. 한국인 투수가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 무대에서 건진 첫 승이었다.

시리즈 전적 1승1패로 맞선 상황, 류현진의 역할은 중요하다.

류현진은 "다들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시즌 때 부상으로 마운드를 많이 지키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있다. 포스트시즌에서는 '팀이 이길 수 있는 경기'를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 안치홍 '20-20' -2홈런 -1도루

프로야구 기록 풍성...KIA, 홈런 3개 추가시 3400홈런



막바지로 접어든 프로야구의 기록 도전은 계속된다.

홈에서 5연전을 치른 KIA 타이거즈가 서울 원정 3연전을 위해 길을 나섰다. 7일 넥센, 8일 두산, 9일 LG를 상대하는 KIA는 10일 하루 휴식을 취한 뒤 11·12일 삼성과 홈경기를 갖는다.

순위싸움은 관심밖 주제가 됐지만 기록은 남았다. 앞으로 KIA 선수들이 3개의 타구를 담장 밖으로 넘기면 팀 3400홈런이 완성된다. 삼성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기록이다.

'주장' 이범호는 2200루타와 700득점을 준비하고 있다. 통산 30번째 2200루타에는 6개가 부족하다. 앞으로 세 차례 더 홈을 밟으면 35번째 700득점의 주인공이 된다.

안치홍의 20-20 도전은 가장 큰 관심사다. '호타 준족'을 상징하는 20홈런 20도루에 홈런 2개, 도루 1개가 부족하다.

선두 삼성의 두 배테랑 이승엽과 임창용은 각각 역대 2번째 1200타점(-1), 4번째 200세이브(-3)를 준비하고 있다.

넥센의 2위를 이끈 주축 선수들도 기록을 쓸 준비를 하고 있다.

투수 뱀해켄이 1승을 더하면서 역대 7번째로 선발 20승 고지를 밟는다. '홈런 왕' 박병호가 두 차례 더 타점을 그리면 4번째 50홈런이 쏜진다.

서건창은 이종범과 이승엽의 아성에 도전한다. 9개의 안타를 추가하면 1994년 이종범이 작성한 196개의 안타를 넘어 최다 안타 신기록을 작성한다.

6개의 득점이 더해지면 1999년 이승엽이 기록한 최다득점(128) 기록을 갈아치우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초집중 6일 오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구리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세계 3쿠션 당구 월드컵에서 한국의 박흥식이 공을 조준하고 있다. /연합뉴스

# "男 골프, 다시 부흥해야죠"

최경주, 무산 위기 '최경주 인비테이션' 성사 시켜

9~12일레이크힐스 순천 컨트리클럽

"예정된 대회 개막일 4주 전에야 개최가 결정됐습니다. 경제 상황에 어려운 가운데 여러 모로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한국프로골프의 간판 최경주(44·SK텔레콤)가 자신의 이름을 건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최경주 인비테이션' 개최를 힘겹게 성사시킨 뒤 6일 귀국했다. 이 대회는 9일부터 12일까지레이크힐스 순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다.

이 대회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세 차례 열렸지만 올해는 타이틀 스폰서와 대회장을 구하지 못해 무산될 위기를 맞았다.

최경주는 "개최가 어려우니 올해는 한 차례 쉬자는 주변의 얘기도 있었다"며 "하지만 대회라는 것이 한번만 건너 뛰면 그 다음에 열리기 힘들기 때문에 경기는 계속 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뛰었다"고 말했다.

이 대회 성사를 위해 동분서주했던 최경주에게레이크힐스 순천 컨트리클럽이 1주간 대회장을 사용하도록 해주고 출전 선수들의 식·음료를 제공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지난해까지 타이틀 스폰서를 맡았던 CJ그룹도 대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다.

어렵게 대회를 이어가게 된 최경주는 "(한국프로골프)협회가 어렵지만 우리가 할 일을 찾아야 한다"며 "1990년대 전성기를 맞았던 한국남자골프의 부흥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경주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각종 비리에 골프가 연관된 것처럼 언론 보도가 나오는 등 골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남아있다"며 "언론에서도 이런 이미지를 없애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